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김 상 진*

〈국문초록〉

문학 생태학이 환경오염과 자연의 훼손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고산구곡가〉는 그 창작에서부터 天人物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태주의의 기본 원리와 일치한다. 〈고산구곡가〉가 천인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담겨진 율곡의 성리학적 사유로 말미암는다. 성리학자 가운데서도 율곡은 특히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그의 사유체계가 〈고산구곡가〉에 표현되었다. 따라서 〈고산구곡가〉를 통한 성리학적 생태인식의 고찰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산구곡가〉에 나타난 생태적 인식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주거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는 순환하는 四時의 아름다움이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노래하여 생태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자연 등이 모두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서의 인식이다. 〈고산구곡가〉에 나타난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하면서 현대의 생태주의에서 표방하는 이상과 유사함으로써 생태주의 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고산구곡가, 율곡, 성리학, 주거, 四時, 조화, 생태주의, 문학생태학

* 한양대

1. 시작하는 말

우리 문학에 생태학이란 말이 등장한 지 10 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그것은 문학 생태학이란 말이 '사전에도 없고 또 아직은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지도 않다'¹⁾는 것으로 잘 요약될 수 있다. 생태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생태학²⁾이 서구에서 발전한 것처럼 문학 생태학 또한 서구에서 먼저 등장하였다.³⁾ 서구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대립적인 파악하는 탓에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연은 날로 훼손될 수밖에 없었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 환경에 눈을 돌리게끔 되었다. 현대로 접어들며 우리 또한 생활이 날로 서구화되고 근대화의 미명하에 자연이 훼손되자 생명체와 주변 환경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생태학적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아울러 문학에서도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태문학, 혹은 녹색문학이란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태 문학이 환경 운동의 여러 이념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으로써⁴⁾ 오염된 자연에 대한 인식을 주로 하여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본고에서 다루게 될 <고산구곡가>는 어쩌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산구곡가>는 율곡이 주자의 <무이도가>를 효방하여 지은 것으로, 그의 성리학적 사상을 10수의 연시조로 형상화한 것이다.

환경 오염과 자연 훼손은 산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

1) 김성곤,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외국문학』 25호, 열음사, 1990, 겨울호, p.79.

2) 생태학이란 용어는 1866년 헤켈(Eaenest Haeckel)에 의해 고안된 어휘로 집이나 거처를 뜻하는 'oikos'와 말, 논, 학문의 의미인 'logos'의 합성어이다.

3) 문학 생태학이란 용어는 미국의 조셉 미커가 쓴 『생존의 희극』(1974년)을 통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4)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 『시문학』, 1995.6, pp.139-140.

업혁명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고 결국 자연 훼손의 근원적인 출발은 물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과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⁵⁾ 울곡은 인간에게 과욕이 생기는 것은 기질이 쇠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기질이 쇠약해 지는 것은 지도자가 善政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⁶⁾ 요컨대 울곡은 자연을 보호하는 능력으로 지도자의 善治 능력정도를 들며, 그들의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다. 이는 이상적인 인간인 聖人을 '천지의 덕과 합치하고, 일월의 밝음과 나란히 하고, 四時와 그 질서를 일치시키는'⁷⁾ 사람이라고 한 것과는 유관하다.

생태주의의 기본 기념을 우주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생태학적 관점은 성리학의 이념과 매우 흡사하다. 미국의 생태주의자 배리 코모너는 생태주의의 원칙에 대하여 모든 생물은 다른 모든 생물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든가, 모든 것은 어디론가 자리를 옮길 뿐 이 세계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등으로 설명한다.⁸⁾ 이러한 코모너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근본으로 하는 성리학적 자연관과 유사한데, 특히 울곡의 자연관과 공통분모를 지닌다. 울곡은 그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理氣의 관계를 理氣之妙, 氣發理乘, 理通氣局이란 용어로

5) 조남국은 『울곡의 삶과 철학 그리고 경제, 윤리』(교육과학사, 1997)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문제의 해결책을 울곡의 사상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6) 울곡은 “상고시대에는 천지의 기운이 매우 성했기 때문에 기운을 순하게 타고난 사람이 많았다. 중고시대 이하로는 천지의 기운의 점차 심히 쇠약해져서 기운을 박하게 타고난 사람이 많다. 이런 까닭에 옛날 사람은 장수한 자가 많고 일찍 죽는 자가 적었으나, 지금의 사람은 일찍 죽는 자가 많고 장수하는 자가 적다……(중략)……임금이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상고 시대에는 기운이 성했고, 임금이 선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시대에는 기운이 쇠했다”고 본다. (『栗谷全書』拾遺 권5, 雜著 2 「壽夭策」: 上古之世 天地氣運甚盛 故得氣之厚者多, 中古以下 天地氣漸甚衰 故得氣之薄者多 是以古之人壽者多 而夭者少, 今之人夭者多 而壽者少……(中略)……上有善治 故上古之氣運以之盛 上無善治 故中古之氣運以之衰)

7) 『栗谷全書』 권14, 「易數策」: 夫聖人德合天地 明竝日月 與四時合其序.

8) 김옥동, 『문학생태학의 위하여』, 민음사, 1998, p.30.

설명한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에서 보이는 그의 사상은 조화와 함께 날
날의 차별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로써 四時의 분변과 함께 자연과 조
화의 일치에 대한 인식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율곡은 자연계의
생성변화를 氣로 설명하며 그 까닭을 理로 보고 있다.⁹⁾ <고산구곡가>
는 이러한 율곡의 사상이 작품으로 형상화 된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이념과 생태인식의 관계를 검토하
기로 한다.¹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고산구곡가>의 에코토피아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도 한 몫을 하리라 기대한다.

2. 생활의 터전과 자연

<고산구곡가>는 율곡이 지니고 있는 道文一體 문학관이 작품으로 형
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이도가>가 무이산의 구곡담을 노래한 것
과 마찬가지로 <고산구곡가> 또한 고산의 구곡담을 노래하고 있다. 노
래의 진술로 볼 때, 고산 구곡을 노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자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學朱子'를 하기 위해 먼저 하는 것이 '卜居'라는 점이다. 더욱이 이는 <고
산구곡가>의 창작 동인이라 할 수 있는 <무이도가>와는 다른 모습이라
주목된다. 즉 <무이도가>는 무이산의 계곡을 배를 타고 다니는 뱃노래
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¹¹⁾ <고산구곡가>는 복거, 즉 거처를 마련하는

9) 율곡은 인간과 자연을 일체화시켜 보면서 인간의 근거를 天, 혹은 천지에 두고
있다(황의동, 『율곡 사상의 체계적 이해1-성리학편』, 서광사, 1997, pp.64-94.).

10) 성리학적, 혹은 동양적 자연관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궁극의 목표로 두는 만
큼 조선조 사대부들의 산수 시조에는 대체적으로 생태주의 인식이 담겨있게
된다. 그러나 자연의 존재 구조를 理와 氣의 묘함으로 보며, '氣發'에 보다 큰
의미를 두는 율곡의 작품에서 생태 인식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것으로부터 시작된다.¹²⁾ 이는 생태학을 인간 거처에 대한 논의로 파악하며, 인간의 거처를 생명의 전체 세계로 보는 생태주의 사상과 일치한다.¹³⁾ 또한 생태학의 어원이 집이나 주거를 뜻하는 'oikos'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하고 學朱子를 흐리라. (제1연)

五曲은 어드미오 銀屏이 보기 조희
水邊 精舍는 灑灑함도 7이 업다
이 中에 講學도 흐려니와 咏月吟風 흐리라. (제6연)

<고산구곡가>는 1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써, 제1연은 서사의 역할을 하며 2연 이하 10연을 통하여 고산의 구곡담을 노래한다. 일곡에서 구곡까지 차례로 장소를 옮겨가며 일년 사시와 하루 사시를 순차적으로 교차하며 노래하여 전 곡이 연계를 가지며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시의 순환은 음양의 구분으로 볼 때 상승구조(봄과 여름, 아침과 낮)와 하강구조(가을과 겨울, 저녁과 밤)의 두 단위로 구분이 가능하다.¹⁴⁾ 위의 두 작품은 각각 상승구조와 하강구조의 서사

11) <武夷權歌>의 첫 수는 다음과 같다. “무이산 위에는 仙靈이 어리어 있고 / 山下의 寒流는 구비구비 맑다 / 그 중에 絶景을 알고자 하면 / 權歌소리 한가롭게 들리는 곳이 바로 거기다 武夷山上有仙靈/山下寒流曲曲清/欲識箇中奇絶處/權歌閑聽兩三聲”(작품의 원문 및 해석은 이민홍의 『증보 사립파문학의 연구』(월인, 2000)에서 인용)

12) 김혜숙은 <무이도가>와 <고산구곡가>의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며, <무이도가>는 무이구곡을 한 차례 배를 타고 지나가는 유람의 과정으로 시화하였고, <고산구곡가>는 고산구곡을 자리잡고 생활하는 지속적 생활의 터전으로 시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고산구곡가>와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13) 남경희, 「생태주의의 인문학서설」 『기호학 연구』 9집, 2001, pp.59-60.

14) 일년 四時와 하루 四時가 적절하게 결합되며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고산

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두 작품이다.

제1연은 작품의 서사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상승 구조에 해당하는 다섯 수의 서사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율곡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종장의 '學朱子'이다. 하지만 주자를 배우기에 앞서 상정하는 것이 '誅茅卜居'이다. 高山는 황해도 해주에 있는 산으로 율곡은 나이 43세에 이곳에 들어가 은거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고산 구곡담은 풀만 무성하여 사람들이 거처하기엔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풀을 베고 집을 지어 살 곳을 마련한다. 자연이 자연으로써 의미를 지니는 것은 어찌면 인간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주모복거'¹⁵⁾를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또한 주모복거를 한 후 화자가 하려는 궁극의 일은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좁게는 주자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겠고 더 나아가서는 무이산 구곡계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며 研學과 講學을 하던 주자의 삶 자체를 배우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¹⁶⁾ 여기에는 자연과 합일하여 에코토피아를 지향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6연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된다. 1연이 구곡담

구곡가)는 1연에서 5연까지와 6연에서 10연까지의 두 단위로 구분된다. 즉 상승 구조에서는 봄·여름과 아침·낮을, 하강구조에서는 가을·겨울과 저녁·밤의 시간을 노래하게 된다(김상진,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의미고찰」 『한양어문』 8집, 한양어문학회, 1990).

- 15) 여기서 '주모'가 인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이는 오히려 친 자연적인 행동으로 봄직하다. 화자가 풀(띠)을 베는 것은 제멋대로 자라나 불품없는 모양을 가다듬는 것이며, 또 그 풀은 잡초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놔두는 자체가 오히려 생태의 파괴가 될 수 있다.
- 16) 주자의 <무이도가>에 관해서는 이민홍의 「고산구곡가의 무이도가고」 I(『開新語文研究』 1집, 충북대, 1981)과 「고산구곡가의 무이도가고」 II(『開新語文研究』 2집, 1982)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을 노래하지 않음으로써 서사로서의 기능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6연은 고산의 5곡을 노래함으로써 전후의 노래들과 순차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타의 노래들이 시간성을 드러내는 데 반해 6연에서는 시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종장의 종결 어미에 ‘허리라’란 미래지형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작품의 서사기능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연에서 화자는 물가에 隱屏精舍를 마련한다. 6연은 순서적으로는 여섯 째에 등장하지만 화자의 생활 근거지가 된다는 점에서 노래의 중심을 이루기도 한다. 여기서 화자의 생활은 講學과 咏月吟風에 초점이 놓이며, 精舍는 1연의 주모복거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은병정사에 관한 기록이다.

무인 6년, 선생 43세 때 은병정사를 지었다……(중략)……이것이 우연히도 무이구곡과 상부한 까닭으로 고산석담구곡이라 했다. 또 제 오곡에 석봉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공읍(두 손을 이마 앞에 등글게 뚸)을 하는 형상이다. 선생은 이에 그 사이에 精舍를 짓고 무이의 大隱屏의 뜻을 취해 隱屏이라 이름하여 考亭之意를 받들어 붙였다. 정사는 聽溪堂의 동쪽에 있다. 선생은 무이도가를 본 따서 고산구곡가를 지으니, 이로부터 원근 학자들이 수없이 몰려왔다.¹⁷⁾

윗 글에서 율곡은 <고산구곡가>를 제작하게 된 경위와 함께 정사를 짓고 이름을 은병정사라고 한 연유를 밝히고 있다. 은병이라 명명한 것 또한 무이의 대은병의 뜻에서 취한 것인 만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1연과 대동소이하다. ‘학주자’가 단지 주자의 학문을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무이산 구곡계에서 자연을 벗삼은 주자의 생활까지를 포함하였

17) 『栗谷全書』 권34. 附錄, 「年譜」下 : 戊寅先生四十三歲 作隱屏精舍……(中略)……偶與武夷九曲相符 故舊名九曲而高山石潭 又適在第五曲 且有石峯 拱揖於其前 先生築精舍於其間 取武夷大隱屏之意 扁之曰殷屏 以寓宗仰考亭之意 精舍在聽溪堂之東 先生作高山九曲歌 以擬武夷權歌 自是遠近學者益進

다면 6연에서는 강학과 영월음풍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며 특히 영월음풍에 초점이 놓인다. 따라서 강학은 입신양명을 위한 학문이 아닌 道를 깨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과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익히라’¹⁸⁾고 한 작자의 「은병정사학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강학의 목적이 道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월음풍 또한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며, 인격 도야를 위해서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렇듯 율곡이 〈고산구곡가〉를 노래함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노래의 출발을 삼는다. 이는 율곡의 자연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이 자연에 머무는 것은 超世的인 은둔을 위함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 생활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며 이는 ‘窮理와 修己에 의하여 일상적인 가정과 사회 및 국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 전제된다.¹⁹⁾ 주희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張橫渠는 『西銘』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며 땅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작은 존재도 이들 가운데서 친밀한 위치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나는 나의 몸으로 여기며, 우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자매이며, 만물은 나의 식구이다.²⁰⁾

이는 자신을 우주 전체와 연결하여 인식한 결과로 자연과 인간을 不可不離의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천인 합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道의 실현을 궁극적인 삶의 지향으로 삼는 성리학적 사유에서 자연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우주)으로 파악²¹⁾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

18) 『栗谷叢書』 권15, 雜著 2, 「隱屏精舍學規」: 若欲做科業者 必習于他處

19) 윤사순, 「율곡 이이의 자연관」, 『율곡사상연구』 2, 율곡학회, 1995, p.13.

20) 진교훈, 『환경윤리』(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100), 민음사, 1998, p.173)에서 재인용.

21) 양근석·이울상, 「동양의 자연관과 생태철학의 이념」, 『국민윤리연구』 39호.

이 <고산구곡가>에서는 실제적인 卜居 행위로 구체화된다. 더욱이 이는 작품이 전개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써, 여타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거의 개념과도 차별설을 띠게 되는데, 이는 곧 생태 환경에 대한 율곡의 내면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3. 四時의 순환하는 자연

<고산구곡가>는 사시가계 시조의 범주에서의 파악이 가능한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산 구곡담의 일곡에서 구곡까지를 나열하며 각각의 아름다움을 하루 四時와 일년 四時의 시간질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노래한다. 사시가 구분되는 것은 氣의 조화로 말미암는다. 율곡 철학의 대표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가 '理通氣局'이다. 이는 율곡이 퇴계의 '理發說'의 불합리함을 입증하기 위해 理와 氣의 본질과 특성을 설명한 이론이다. 율곡에 의하면 理란 본말이 없고 선후가 없는 것으로 이를 이르러 '理通'이라 하고, 氣는 본말이 있고 선후가 있는 것으로 '氣局'이라고 한다. '通'이 理가 무형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두루 통할 수 있음을 뜻한다면, '局'은 氣가 유형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국한됨을 말한다.²²⁾ 요컨대 이기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생성과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로써 四時의 현상 또한 자연스레 설명된다.

한국국민윤리학회, 1998, p.231.

22) 율곡의 이통기국에 의거한 자연관에 대해서는 윤사순의 「율곡 이이의 자연관」, (『율곡사상연구』 2집, 율곡학회, 1995)와 김명숙의 「유기적 관점에서 본 율곡의 자연관과 인간관」, (『율곡사상연구』 4집, 율곡학회, 2001) 참조. 한편 '이통기국'에 관해서는 장숙필의 「율곡 이이의 이통기국설과 인물성론」, (『율곡학보』 14, 율곡학회, 2000)와 배중호의 「율곡의 이통기국설」, (『동방학지』 27, 연대 국학연구원, 1981)에서 상론되었다.

<가>

一曲은 어드미오 冠巖에 히 비취다
平蕪에 니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樽을 노코 벗오는 양 보노라. (제2연)

四曲은 어드미오 松崖에 히 넘거다
潭心 巖影은 온갓 맞치 즘겨세라
林泉이 김도록 도호니 興을 계워 호노라. (제5연)

六曲은 어드미오 釣峽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黃昏에 낙터를 메고 帶月歸를 호노라. (제7연)

八曲은 어드미오 金灘에 돌이 붉다
玉軫金徽로 數三曲을 노는말이
古調를 알 이 업스니 혼자 즐겨 호노라. (제9연)

<나>

二曲은 어드미오 花巖에 春晚커다
碧波에 곱출 띄워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제3연)

三曲은 어드미오 翠屏에 님 퍼졌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 호는 적에
盤松이 바름을 바드니 녀름 景이 업세라. (제4연)

七曲은 어드미오 楓巖에 秋色 도타
清霜이 얹게 치니 絶壁이 錦繡로다
寒巖에 혼자 안자서 집을 잇고 잇노라. (제8연)

九曲은 어드미오 文山에 歲暮커다
奇巖 怪石이 눈 속에 무쳐세라
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호더라. (제10연)

<가>는 하루 사시를, <나>는 일년 사시를 노래하고 있다. <가>에서는 고산 구곡의 공간이동과 시간의 변화를 병치시키며 진행하고 있다. 1곡 → 4곡 → 6곡 → 8곡으로 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해가 비침' '해가 넘음' '황혼' '달이 밝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루 동안 변화하는 시간에 주목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춘하추동의 일년 사시를 노래한 <나>에서도 2곡 → 3곡 → 7곡 → 9곡으로 공간이 옮겨짐에 따라 '春風' '여름' '秋色' '歲暮'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계절의 변화를 노래한다. <가>와 <나>는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하게 되지만, <가>의 노래가 해와 달의 변화에 따라 서술어에 주목한다면 <나>의 경우는 계절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게 된다.

<가>와 <나>의 작품은 한 눈에도 질서정연하고 조화롭단 느낌을 준다. 이는 초장에서 보이는 형식의 통일에 말미암는다. 고산 구곡을 설명하는 아홉 수의 초장이 모두 "○곡은 어드미요, ○○에 ○○하다"란 동일한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 구조가 형식적인 통일감으로 조화로우를 꾀한다면, 구곡담의 정경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의 광경을 담박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모습을 그려내게 된다.

<가>는 관암, 송애, 조협, 금탄의 네 곳의 광경을 하루 동안의 시간 흐름에 따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비치자 잠초 우거진 들뜬에 드리웠던 안개가 걷히고, 먼데 산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태로 나타난다는 2연의 광경이나, 소나무 언덕으로 해지는 저녁에 모든 빛이 못 속 바위 그림자에 잠겼다는 5연의 묘사는 일체의 수식을 배제함으로써 담담한 기운을 풍긴다.²³⁾ 이렇듯 화자는 그 어떤 기교나 수

23) 이렇듯 무미건조한 묘사에 대하여 최진원은 '淡泊'이라는 말로 표현했고(『한국 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 출판부, 1988, p.43), 이민홍은 '不事繪飾'이라고

사를 동원하지 않은 채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²⁴⁾ 좁은 골짜기 냇시터에 물이 넘치는 7연의 상황이나, 금빛 여울에 달빛이 밝게 비치는 9연 또한 순수 자연의 모습을 지님으로써 맑고 쾌적한 고산 구곡의 하루를 노래한다.

〈나〉 또한 화암, 취병, 풍암, 문산으로 이름한 네 곳이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병치되어 계절의 절경을 그려낸다. 화암에 봄이 저물어가는 3연은 푸른 파도에 꽃을 띄어보내는 중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꽃이 흐트러지게 만발한 봄날의 화사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취병에 나뭇잎이 우거진 4연 또한 중장의 綠樹와 종장의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부는 경치가 어우러져, 무덥고 후텁지근한 여름날이 아니라 소나무 숲속에서 보내는 시원한 여름 한 때를 연상케 한다. 풍암을 노래한 8연은 중장을 통하여 추색이 좋은 이유를 제시한다. 곱게 물든 단풍이 바위 절벽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맑은 서리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에서, 비단 수를 놓은 듯한 가을 산의 자태를 느낄 수 있다. 8연이 가을 단풍의 묘사로 화려함을 지닌다면 문산의 겨울을 노래한 10연은 차분함과 숙연한 자연의 모습이다. 모든 것은 눈 속에 가리워져 있다. 이는 폭설의 이미지보다는 인적이 드문,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상 〈가〉와 〈나〉에서 묘사된 고산 구곡의 모습을 통해 맑고 투명한 자연 환경을 느끼게 된다. 먼 곳 산이 보인다든지, 모든 것을 다 비칠

하였다(앞의 책, p.245). 한편 신연우는 〈고산구곡가〉의 이러한 면모가 엄격한 감정의 절제에 기인한다고 본다(『조선조 사대부 시조문학 연구』, 박이정, 1997, pp.83-86).

24) 이를 율곡의 『精言妙選』의 용어로 표현하면 ‘無彫琢之巧’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즉 ‘기교의 미보다 기교의 일탈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미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이다(최동국, 「조선조 중엽의 시조와 淡의 美」 『시조학논총』 18집, 한국시조학회, 2002, p.15).

수 있는 못, 얇은 서리가 드리워 더욱 아름다운 단풍, 문산의 설경 등은 공해로 오염된 현대에서는 좀체로 보기 어려운 자연 환경이다. 더욱이 여기서 펼쳐지는 자연의 묘사는 화자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훼손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려는 화자의 내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고산구곡가>에 보이는 이러한 四時의 개념은 일차적으로는 하루나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인간의 본성을 내포한다는 보다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당시 사회의 전범이었던 성리학의 완성자이자 율곡이 본받고자 했던 朱子는 『周易本義』를 통하여 『周易』의 元亨利貞이 계절에서는 春夏秋冬, 사람에게는 仁義禮智가 된다고 했다. 이로써 계절과 사람의 본성은 그 근본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시를 노래한다는 것은 하늘의 운수(天命)와 인간의 심성(心性)을 담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천명과 심성 그리고 四時의 순환에 관한 율곡의 언급이다.

천지가 오래 봄만 될 수 없으므로 사시가 바뀌고, 원기가 홀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음양이 함께 유행하는데, 해가 가면 달이 오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왕성함이 있으면 쇠퇴함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은 천지의 실리가 아님이 없다²⁵⁾

한 번 음하고 한번 양하면서 천도가 유행하고 원형리정이 순환 반복하니, 사시가 바뀌며 유행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님이 없다²⁶⁾

대저 음양의 양단은 끊임없이 순환하여 본래 그 시초라는 것이 없다. 음이

25) 『栗谷全書』拾遺, 권4, 「神仙策」: 天地不可以長春 故四時代序 元氣不可以獨運 故陰陽並行 日往則月來 寒往則暑來 有盛則有衰 有始則有終 莫非天地之實理也

26) 『栗谷全書』拾遺, 권5, 「節序策」: 對一陰一陽天道流行 元亨利貞周而復始 四時之錯行 莫非自然之理也

다하면 양이 생기고 양이 다하면 음이 생겨,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한 번은 양이 되었다가 하지만, 거기에는 태극이 있지 않을 때가 없다. 이것이 태극이 萬化의 樞紐요 만물의 근거가 되는 까닭이다.²⁷⁾

이처럼 율곡은 음양의 작용이나 사시의 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이는 모두 자연의 이치로 말미암는 것으로 보았다.²⁸⁾ 요컨대 <고산구곡가>는 이러한 우주 대자연의 법칙인 순환의 원리가 작품으로 형상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율곡은 聖人을 ‘천지의 덕과 합치하고, 일월의 밝음과 나란히 하고 四時와 그 질서를 일치시키는 인간’으로 보는 『周易』의 사상에 동의한다.²⁹⁾ 이는 궁극적으로 그의 성리학적 사유인 주기론에 근거한 것일텐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생태주의의 인식과 닮아 있다.

4. 더불어 사는 자연

<고산구곡가>는 자연과 사람, 혹은 사물과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묘사되는 자연이 일체의 훼손 없이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을 포함한 사물과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에코토피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퇴계가 자연보다는 인간의 삶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율곡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 관심이 있었다.³⁰⁾ 따라서 <고산구곡가>에 묘사되는 자연은 인간과

27) 『栗谷全書』 권9 「答朴和叔」：大抵陰陽兩端 循環不已 本無其始 陰盡則陽生 陽盡則陰生 一陰一陽而太極無不在言 此太極所以爲萬化之樞紐 萬品之根抵也.

28) 율곡은 氣發理乘을 주장하며 氣에 의해 물상이 만들어지며 거기에 理가 작용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氣의 조화로 계절의 양상이 분화되고 분화된 계절에는 각각 理가 담긴다고 하여 理과 氣의 관계를 설명한다.

29) 윤사순, 「栗谷 李珣의 自然觀」 『율곡사상연구』 2, 율곡학회, 1995, pp.12-13.

사물 등이 모두 어울려 조화를 이루게 된다.

조화로운 자연을 꾀하는 율곡의 인식은 타인(벗)에 대한 관심과 物我一體 자연관으로 구체화된다.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과의 접촉을 잃은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³¹⁾ 자연과의 접촉을 잃는 것은 생태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는다. 그랬을 때, <고산구곡가>에서 보이는 자연은 천연의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긴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긴밀함을 보인다. 현대의 생태주의 시에서 소외 문제가 인간관계의 소원, 자연과의 분리로 비롯됨을 생각할 때 <고산구곡가>에서 자연과 함께 인간과 인간이 모두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에코토피아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고산구곡가>에 등장하는 타인의 존재는 적어도 단순한 심심파적의 대상은 아니다. 이는 작자인 율곡의 사대부로서의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러나 자연에 머무는 사람의 품격에 대하여 율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러나 自守하는 사람은 그 품격이 세 가지가 있다. 不世之寶를 품고 濟世之具를 쌓아 자기 분수에 만족하여 道를 즐기며 韞櫝待賈하는 사람은 天民이다. 學이 부족함을 스스로 헤아려 그 學에 나가기를 구하고 藏修待時하며, 가볍게 출세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學者이다. 고결하고 淸介하여 천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卓然長往하여 세상을 잊는 사람은 隱者이다. 天民이 때를 만나면 온 천하 사람이 그의 혜택을 입는다. 학자는 비록 밝은 시대를 만날지라도 참으로 그 道가 미심쩍은 바가 있으면 가볍게 나아가지 않는다. 만약 은자라면 懸世에 치우치므로 시중의 道가 아니다.³²⁾

30) 황의동, 앞의 책, p.64.

31) 장정렬, 『생태주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0, p.70.

32) 『栗谷全書』 권15, 「東湖問答」: 退而自守者 其品有三 懷不世之寶 蘊濟時之具 韞櫝樂道 韞櫝待賈者 天民也 自度學不足而求進其學 自知材不優而求達其材 藏修待時 不經自售者 學者也 高潔淸介不屑天下之事 卓然長往與世上忘者 隱者也

여기서 율곡이 지향하는 바는 天民과 學者인데, 그 중에서도 천민을 으뜸으로 생각한다. 천민이 때를 만나면 ‘온 천하 사람이 그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으로써 兼善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고산구곡가>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된다.³³⁾

高山 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하고 學朱子를 하리라. (제1연)

一曲은 어드미오 冠岩에 히 비친다
平蕪에 니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樽을 노코 벗 오논양 보노라. (제2연)

二曲은 어드미오 花岩에 春晚커다
碧波에 곱출 띄워 野外로 보내노라
사람이 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제3연)

위의 세 작품에는 타인(사람, 벗)이 등장한다.³⁴⁾ 고산 구곡담의 절경을 대하여, 화자는 이것을 타인과 함께 더불어 즐기고자 한다. 제1연의

天民偶時 則天下之民 皆被其澤矣 學者雖遇明時 苟於斯道 有所未信 則不敢輕進焉 若隱者則偏於懸世 非時中之道也

33) 실제로 율곡은 현실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그가 자연에 머무는 것은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손님이 말했다.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서 경국제민에 뜻하지 않음이 없으니 뜻과 일이 같아야 하거늘, 혹은 나아가 兼善하고 혹은退하여 自守함은 무슨 까닭인가?’ 주인이 말했다. ‘선비의 兼善은 진실로 그 뜻이니 自守함이 어찌 본심이겠는가. 때의 만남과 못 만남이 있을 뿐이다’”(『栗谷全書』 권2 「東湖問答」: 客曰 士生斯世 莫不以經濟爲心 宜乎心亦皆同 而或進而兼善 或退而自守 何耶主人曰 士之兼善 固其志也 退而自守 夫其本心歟 時有遇不遇耳.)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4) 이민홍은 ‘사람’은 治君澤民의 民인 백성, ‘벗’은 道友(벗에는 道友, 宦友, 文友의 세 부류가 있으며 이중 道友가 최상이다)로 파악하였다(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 출판부, 1993, p.243).

초장, 중장에서 高山의 아홉 고비를 사람들이 모르더니 풀을 베고 살 곳을 정하니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였다. 이곳에 인적이 드문 것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이룬다. 그런데 화자는 혼자 발견하여 즐기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벗들을 불러 함께 즐기고자 한다.

타인과 함께 자연을 즐기려는 화자의 의지는 2연과 3연으로 이어진다. 2연에서 화자는 정성으로 벗을 대한다. 벗을 위해 술통도 '綠樽'으로 마련한다. 술통이 좋으면 그 안에 담기는 술 또한 名酒일 것인데, 이렇듯 벗에게 예우를 다하는 것은 그 벗이 道友이기 때문일 것이다. 3연에서도 화자는 이웃과 함께 봄의 절경을 즐기고자 한다. 또한 '벗'이 아닌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³⁵⁾ 공해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 속에서, 혼자만이 아닌 인간과 인간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고자 하는 모습에서 에코토피아로서의 <고산구곡가>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한편 <고산구곡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는, 물아일체를 이루는 생활 공간의 모습을 제시한다.

三曲은 어드메오 翠屏에 님 퍼것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 호는 적에
盤松이 바름을 바드니 녀름 景이 업세라. (제4연)

六曲은 어드미오 釣峽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黃昏에 낙터를 메고 帶月歸를 호노라. (제7연)

35) '벗'이 學朱子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修己에 가깝다면 '사람'은 兼善의 의미로 볼 수 있다(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p.75).

4연은 草木之樂과 禽獸之樂, 그리고 盤松之樂을 노래함으로써 천지 자연을 이루는 모든 사물이 조화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자연의 樂을 즐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화자(인간)이다.³⁶⁾ 이로써 天·人·物이 화합을 이루는 자연을 연출한다. 4연이 사물의 즐거움을 통해 인간의 즐거움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 7연은 사물과 인간이 어울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7연의 화자는 조합에서 낚시를 하지만 고기를 낚음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낚시를 드리우는 행위 자체가 화자에겐 즐거움이며, 고기 또한 생명을 담보로 하여 낚시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즐겁게 놀이를 하는 것이다. 고기를 낚는 화자뿐만 아니라 고기도 함께 즐긴다는 진술을 통해 화자와 고기는 내외 합일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내외 합일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하여 율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外物 중의 즐거워 할만한 것은 모두 참다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다. 군자의 즐거워하는 바는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으므로 저 솥은 봉우리와 흐르는 물은 다 나에게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옛 성현이 오히려 이를 즐거워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대개 內外를 나누어서 둘로 보는 것은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외를 하나로 하여 彼此가 없어야만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것이 된다. 天理는 본래 내외의 간격이 없는 것인데 저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인욕이 개재해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인욕의 개재가 없다면 바로 호연자득케 된다. 어찌 가서 즐기지 않겠는가?³⁷⁾

즉 내외를 하나로 하고 피차의 사이를 없앨 때 眞樂을 얻을 수 있게

36) 이민홍,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pp.246-247.

37) 『栗谷全書』 권13, 「松崖記」: 嗚呼 外物之可樂者 皆非眞樂也 君子之所樂 在內而不在外則 彼之時且流者 無與於我 以古之聖賢 尙有樂之者 其故何耶 蓋分內外而二者 非之眞樂者也 必也一內外無彼此者 其知眞樂乎 天理本無內外之間 彼有內有外 必有人欲間之也 苟無人欲之間 則浩然自得 焉往而不樂哉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율곡이 뜻하는 자연과의 합일은 道家에서 보이는 은둔적인 '자연에의 몰입'이 아닌 窮理와 修己에 의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이다.³⁸⁾ 율곡의 이러한 자연관은 현실 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자연 환경 속에서 모든 개체가 더불어 공존하는 생태 환경을 구현하게 된다. <고산구곡가>의 화자가 '자신의 경지를 자신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와 연결시킨다'³⁹⁾는 지적 또한 더불어 함께 하는 생태 자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환경의 파괴가 인간의 소외와 연결되어, 자연과의 접촉을 잃은 데서 인간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을 유념할 때 <고산구곡가>의 더불어 함께 하는 자연의 공간은 생물 공동체와 이를 존속하는 환경과의 균형과 조화를 꾀한다.

5. 맺는 말

현대의 생태 문학이 인간 소외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훼손 등의 각성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야생 동식물과 인간이 동등한 레벨의 생명체라는 인식을 요구'⁴⁰⁾하고 있다면, <고산구곡가>는 天·人·物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태주의의 기본 원리와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율곡이 지니고 있는 성리학적 사유체계와 생태학이 생명체와 함께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것에 근거하여 <고산구곡가>를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생태 인식을 고찰하였다.

<고산구곡가>에 드러난 생태인식 가운데 하나가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생태학의 어원이 집이나 주거를 의미하는 'oikos'라는

38) 윤사순, 앞의 논문, p.13.

39) 신연우, 앞의 책, pp.87-88.

40) 문덕수, 『생태시와 에콜로지』 『시문학』, 현대문학사, 1999.6, p.95.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시사적이다. <고산구곡가>는 卜居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5곡에는 은병 정사가 등장한다. 이는 시간 구조로 볼 때는 노래의 중간에 해당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렇듯 卜居와 精舍의 개념을 통하여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생태 인식의 한 면을 보여준다.

‘四時의 순환’이라는 점 또한 생태 인식의 면모를 보인다. 이는 율곡 철학이념의 대표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인 理通氣局의 사상적 표현이면서 공생성, 연계성, 순환성 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생태주의의 정신과도 유사하다. 더욱이 <고산구곡가>의 화자는 이러한 四時의 변화에 일체의 조작을 가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이상 기후의 현상과 그로 인한 재해 현상이 생태계의 자연 법칙이나 순환의 법칙을 깨뜨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라면 <고산구곡가>에서 보이는 四時의 순환은 생태계의 법칙이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려는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율곡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조화 의식은 환경 훼손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소외로 말미암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의미를 지닌다. <고산구곡가>에서는 天人の 조화와 함께 ‘나’(화자)와 타인, 혹은 ‘나’와 자연의 사물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모두 조화를 이루게 된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상들이 자연을 무대로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훼손함이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이다. <고산구곡가>에서는 이들의 조화를 통해 훼손됨이 없는 생태의 모습을 드러낸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서양의 자연관과는 달리, 동양의 자연관은 조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유학사상

은 어쩌면 현대의 생태 문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조선 조 유학의 중심은 성리학이다. 그것의 해석을 두고 오랜 시기에 걸쳐 당대의 학자들의 크고 작은 견해 차이가 있어왔다. 율곡은 理氣之妙, 理通氣局, 氣發理乘의 견해를 주장하며, 자연의 현상에 氣가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나타나는 현상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율곡의 사상은 그래서 자연의 현상이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산구곡가>는 이러한 율곡의 철학적 사유가 문학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를 생태시의 원조격으로 보기도 한다. 낭만주의 시가 시심의 원천이 되는 동심을 '오염되지 않은 위대한 자연'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⁴¹⁾ 그렇다면 <고산구곡가>에서 드러난 자연의 모습은 파손됨이 없는 생태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그려냄으로써 생태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임과 동시에 현대의 생태문학이 회귀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栗谷全書』 I · II(『한국문집총간』 44 · 45),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9.
『국역 율곡집』(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4(중판).
김명숙, 「유기적 관점에서 본 율곡의 자연관과 인간관」 『율곡사상연구』 4집, 율곡학회, 2001.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의미고찰」 『한양어문』 8집, 한양어문학회, 1990.
———,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김성곤,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외국문학』 25호, 열음사, 1990.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혜숙, 「〈고산구곡가〉와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남경희, 「생태주의의 인문학서설」 『기호학연구』 9집, 2001.

41) 송희복, 「푸르른 울음, 생생한 초록의 광휘-에코토피아의 시학」 『현대시』 77, 한국문연, 1996.5.

- 문덕수, 「생태시와 에콜로지」 『시문학』 335호, 현대문학사, 1999.6.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배종호, 「울곡의 이통기국설」 『동방학지』 2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1.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 『시문학』 287호, 현대문학사, 1995.6.
송희복, 「푸르른 울음, 생생한 초록의 광휘-에코토피아의 시학」 『현대시』 77호, 한국문연, 1996.5.
신연우, 『조선조 사대부 시조문학 연구』, 박이정, 1997.
양근석·이을상, 「동양의 자연관과 생태철학의 이념」 『국민윤리연구』 39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98.
윤사순, 「울곡 이이의 자연관」 『울곡사상연구』 2, 울곡학회, 1995.
이민홍, 「고산구곡가와 무이도가고」(I·II) 『개신어문연구』 1집·2집 충북대학교, 1981·1982.
———,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 출판부, 1993.
———, 『중보 사립과문학의 연구』, 월인, 2000.
장숙필, 「울곡의 이통기국설과 인물성론」 『울곡학보』 14, 울곡학회, 2000.
장정렬, 『생태주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0.
조남국, 『울곡의 삶과 철학 그리고 경제, 윤리』, 교육과학사, 1997.
진교훈, 『환경윤리』(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100), 민음사, 1998.
최동국, 「조선조 중엽의 시조와 淡의 美」 『시조학논총』 18집, 2002.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 출판부, 1988.
황의동, 『울곡 사상의 체계적 이해1-성리학편』, 서광사,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Metaphysics and Ecology of 'Gosangugokga'

Kim Sang-Jin

The goal of work is to Metaphysics(the science of human nature and natural laws) and Ecology of Gosangugokga(고산구곡가). Gosangugokga is the harmony of nature and human. The fundamental idea of

Metaphysics and Ecology are each same.

Gosangugokga is the works of Yunsijo(연시조) by the Yulgok(율곡) and formulated ten-lines. Yulgok was Korean famous a Confucian scholar. His thought summarized that is Likizimyo(理氣之妙), Litongkiguk(理通氣局), Kiballiseung (氣發理乘). Yulgok was an espeaially emphasize to the harmony of nature and human. Gosangugokga is the appearance of Yulgok's thought. And so, it is possible throughout Gosangugokga was the metaphysical recognize of ecology.

The works of a recognition of residence, the rotation of four seasons, the company with life were the metaphysical recognize of ecology in Gosangugokga. The contents of a Gosangugokga is the fundamental idea of metaphysics. Then, that is the closely related to the ecolog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studied the Gosangugokga by investigating a relationship between metaphysics and ecology.

Keywords : Gosangugokga, Yulgok, Metaphysics, Ecology, Residence, Four seasons, Harmony.